

“ 전능자가 선택한 무력함 ”

- * **신양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 **성경봉독** :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

▶ A. 구역공과 ◀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이나, 주일영광예배 때 나눈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이 능력으로 문제를 없애기보다, 우리의 고단한 길을 직접 걸어오셨다는 사실이 요즘 내 삶의 어떤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나요? (“왜 안 바꿔 주실까?”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3. 요셉과 마리아가 ‘빈 방’이라는 거절의 경험을 한 것처럼 요즘 삶 속에서 사람이나 상황 앞에 거절당하거나, 밀려났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그 때 내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았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4. 예수님은 왕처럼 군림하려 오시지 않고 누군가의 생명이 되어 주시기 위해 ‘밥’으로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나도 누군가의 밥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실제로 옮긴다면, 내가 낮아져 섬길 한 사람 /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일(잠11~14장) 잠언 11장부터 14장은 의인과 악인의 삶이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지만, 속임과 교만으로 사는 사람은 당장은 잘되는 것 같아 보여도 끝은 무너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화요일(잠15~17장) 잠언 15장부터 17장은 말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지 않고, 분노를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잘 듣는 태도를 가집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말로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 구간은 특별히 가정과 이웃,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보여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고, 그 겸손함이 결국 관계를 살리는 지혜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수요일(잠18~21장) 잠언 18장부터 21장은, 말의 힘과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보여 줍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깊이 상하게 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도구이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쉽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인간의 계획과 판단 위에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열심히 계획하되,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목요일(잠22~24장) 잠언 22장부터 24장은 지혜로운 삶은 훈련된 삶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참된 부요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게으름과 조급함, 악인의 형통을 부려워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합니다. 특히 이 구간은 자녀 교육과 삶의 태도를 언급하며, 지금의 선택과 습관이 미래를 만든다는 원리를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지혜는 단번에 생기지 않으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길러진다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금요일(잠25~27장) 잠언 25장부터 27장은 인간관계와 자기 절제의 지혜를 다룹니다. 말에도 때가 있고, 관계에도 거리와 분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진실한 책망은 친구를 살리지만 아첨과 겉치레는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성과 같다는 표현을 통해, 외적인 능력보다 내적인 절제가 얼마나 중요 한지를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임을 이 구간은 분명히 보여 줍니다.

토요일(잠28~31장) 잠언 28장부터 31장은 지혜로운 삶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죄를 숨기며 사는 삶은 결국 막다른 길로 있지만,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긍휼을 입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 구간은 재물과 권력보다 정직과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강조하며, 마지막 3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특정한 역할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일(전1~3장) 전도서 1장부터 3장은 잠언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반복되고 헛되어 보이며, 지혜와 수고, 즐거움조차도 인간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현실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때를 정해 두셨고, 인간은 그 때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갈 때 삶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 성경을 읽고 난 후 각자 느낀 점을 나눕니다.

* 합심기도 :

1.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2. 내 마음의 ‘빈방’을 주님께 내어드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도록.
3. 주님처럼 누군가의 ‘밥’이 되는 섬김(가정·구역·이웃)을 실천할 용기와 구체적 기회를 주시도록.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112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의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주영 목사)